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2호 [루게 제24475호] 주제 103 (2014)년 3월 3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강판일동지, 황병서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찬한 기세로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에서 현일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비와 명제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평양약전기계공장의 발전력사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중한 사적품과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도량형기를 생산하던 자그마한



품개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새롭고 현대적인 약전기계제품을 연구개발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합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새 제품 연구개발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기성기술문헌에도 없는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공장이 대규모의 약전기계공업기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공장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시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립된 약전기계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으며 수요도 대단히 높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지난 기간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것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차넘치는 과학기술중시기풍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는 약전기계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 개척자가 되어 최첨단약전기계제품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할 열의드높다

고산과 수농장 건설에 펼쳐나선 618 건설돌격대원들

당정책옹위전의 기발을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 건설을 다짐으로써 혁명적 투쟁에서 입대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618 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정책옹위전의 기발을 높이 들고 고산과 수농장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들은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할 불같은 열정으로 파이프관과 전선, 전선생선, 도로, 송전선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보장해주었다. 특히 암반조건에 맞게 발파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자갈천 호상간 사비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발파시간을 철저히 보장해나갔다. 함경북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에서는 발파가 끝난 다음 로력과 물질을 철저히 정리하여 버려치려와 와닥닥 해체하면서 기초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5천여㎡의 암반을 처리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1300여㎡의 암반을 넘겨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에서는 돌격대원들이 호상간 사비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발파시간을 철저히 보장해나갔다. 함경북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에서는 발파가 끝난 다음 로력과 물질을 철저히 정리하여 버려치려와 와닥닥 해체하면서 기초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5천여㎡의 암반을 처리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러단에서는 전주세우기를 앞세우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관부문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450여대의 전주세우기 제조에 참여하기 위한 수송장비를 짜고들었다.

집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고산과 수농장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열의와 헌신의 하루하루는 결코 평범하게만 흐르지 않았다.

에서 살다싶이 하며 돌격대원들과 함께 긴장한 전주수송장비를 벌려나갔다. 이런 일군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방호로 인하여 수백대의 전주수송장비는 불과 4일동안에 결속되게 되었다. 전주세우기를 화차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던 날도의 책임일군은 떠난다 안영택 동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간 정치부장은 이제는 밤도 피고나 갔었으니 들어가 쉬라하고, 매일작업과도 할지 않은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였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루라도 빈자리 자리에 누워도 선뜻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이길수 없는 지덕과 필입니다.》

연 20여리의 도로공사에서 혁신

현장지휘부에서는 도로의 안전성과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투를 완강하게 내걸었다. 우물수불한 도로를 직선으로 펴기 위한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투사작부터 드레싱 공작을 벌렸다. 모든 단위에서 공사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로력과 물질을 집중하였다. 결과 5천여㎡의 도면을 처리하고 3천여㎡의 막돌과 깬돌을 확보하여 도로면을 다져놓음으로써 3일동안에 530여m구간의 도로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 모든 대대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평진동다짐기를 만들어 사용하며, 황해북도에서는 비록한 여러 단위에서는 혼합기, 파쇄기 등의 설비들과 각종 기공구도 빈틈없이 제작하였다. 2월말까지 규격별깬돌생산을 끝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남포시에서는 돌격대원들이 여러가지 기공구도 빈틈없이 제작하였다. 2월말까지 규격별깬돌생산을 끝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남포시에서는 돌격대원들이 여러가지 기공구도 빈틈없이 제작하였다. 2월말까지 규격별깬돌생산

4만여대의 파이프나루지대 생산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에 들어와 4만여대의 파이프나루지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에서는 대대들이 자갈, 모래,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앞세워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대동강구역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고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매일 많은 량의 모래를 생산적으로 실어내려주며 깬돌보장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강동구에서는 필요있는 량의 환경을 지장없이 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평양시에서는 대대들이 자갈, 모래,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앞세워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대동강구역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고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매일 많은 량의 모래를 생산적으로 실어내려주며 깬돌보장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강동구에서는 필요있는 량의 환경을 지장없이 보장하기 위한

전력공업성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력공업성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심호에 선 심정으로

지난 2월 초 전력공업성립단의 일부 령들이 함경남도의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하여 전주수송장비를 펴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이들이 일하고있는 작업장에서 문득 도의 책임일군이 찾아왔다. 령장들을 비롯하여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꿇추는 그는 전주수송장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돌아간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의 뒤를 따라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도 돌격대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특히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현장

어길수 없는 지덕과 필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간 정치부장은 이제는 밤도 피고나 갔었으니 들어가 쉬라하고, 매일작업과도 할지 않은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였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루라도 빈자리 자리에 누워도 선뜻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이길수 없는 지덕과 필입니다.》

우수중대장 김충환동무가

두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며 일손을 더욱 다그쳤다.

전날같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쁘게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618 건설돌격대원들 모두가 이런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고산과 수농장 건설에 깨끗한 광명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기초공사에서 5천여㎡의 암반을 처리

파이프관과 전선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떠난다 안영택 동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간 정치부장은 이제는 밤도 피고나 갔었으니 들어가 쉬라하고, 매일작업과도 할지 않은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가 올해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창조자의 영예명칭 기세로 일군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갈생선의 속도와 깬돌보장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날아갔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변전소, 송전선공사에 진입

전력공업성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력공업성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력공업성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창조의 숨결 높뛰는 일터

평양시려단 대동강구역대대를 찾아서

12월말까지 총본량 1000여톤의 모래를 확보해놓은 기세로 올해에 들어와 전력공사를 다그치고있다. 돌아보면 앞날엔 대중의 창의창발성이 적극 발휘되는 속에 높이 세운 전투목표는 어김없이 수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신심에 넘쳐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파이프나루지대 생산기기가 가까이 있는 파이프관공사에 향하였다.

자갈생선과 관련된 모든 공정이 치자처럼 맛있게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은 또다른 부름부름 같았고있다.

현장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

그들의 열면 모습을 바라보

고있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모든가 올해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창조자의 영예명칭 기세로 일군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갈생선의 속도와 깬돌보장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날아갔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만가동보장을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는 리영호, 고철준동무들도 대대의 자랑이라고 덧붙여었다.

남다른 긍지가 비친 그의 말속에서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높이는 애국열의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쉬임없이 생산되는 자갈마다에 이들의 창조적 지혜를 배워있고 생각하니 무심히 웃었다.

체색장에서도 창조의 기상이 나뉘고있었다. 돌격대원들이 여러가지 도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자갈을 마련해내던 일, 대대의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대동강구역의 불길은 세차게 지퍼올리는데서 창조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돌격대원들의 열정적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환과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고산과 수농장건설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들의 미더운 모습을 새기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함경남도려단 파이프관과 기초공사와 도로건설을 비롯한

달려진 전투과제수행에서 앞장서고 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단상을 면밀하게 하고 높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게 믿음있게 조직전진시켜야 합니다.》

려단일군들은 작업량과 조건을 먼저 따져보고 깊은 사색과 탐구로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중시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은 기계설비들의 점진보수를 잘하여 가동률을 높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어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작은 리력으로 공사실적을 높이면서 질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심고리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파이프관과 기초공사에서 제기되었던 려단일군들은 토목과 지공을 담당하는 토목과 지공이 암반처리를 동반하고있기 때문이다. 작업량은 적지

구체적인 라산과 면밀한 작전

함경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단상에 해체공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때문이다.

즉시 수리정리공사를 벌여져 며칠사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결과 려단은 보름동안에 계획된 암반처리과제를 넘겨준데다 기초공사에서 앞선 단위로 되었다.

객관적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원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때도 내포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도로포장을 질적으로 하기 위해 수평진동다짐기를 만들자는 려단일군들의 제의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도로포장기술을 놓고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수평진동다짐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자재타산안을 세웠다. 이때 그들은 2.8비탈면합기압소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이것을 먼저 만들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고 여러차례의 시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안정화하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려단정리일군들이 현장

한심호에 선 심정으로

지난 2월 초 전력공업성립단의 일부 령들이 함경남도의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하여 전주수송장비를 펴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이들이 일하고있는 작업장에서 문득 도의 책임일군이 찾아왔다. 령장들을 비롯하여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꿇추는 그는 전주수송장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돌아간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의 뒤를 따라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도 돌격대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특히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현장

어길수 없는 지덕과 필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간 정치부장은 이제는 밤도 피고나 갔었으니 들어가 쉬라하고, 매일작업과도 할지 않은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였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루라도 빈자리 자리에 누워도 선뜻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이길수 없는 지덕과 필입니다.》

우수중대장 김충환동무가

두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며 일손을 더욱 다그쳤다.

전날같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쁘게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618 건설돌격대원들 모두가 이런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고산과 수농장 건설에 깨끗한 광명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최첨단돌파전으로 연구성과 계속 도입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력의 해로 빛내려는 당의 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성과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혁명적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고 강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소의 일군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으로 올해 과학연구사업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과학자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치며 연구성과를 대대적으로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곳 과학자들은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현실에 도입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하여 실질적인 은이 나게 하고 있다.

채굴설비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 완성한 침입식착암기를 가지고 창전단계발전건설현장에 달려나가 년초부터 혁신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니까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 침입식착암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자재타산안을 세웠다. 이때 그들은 2.8비탈면합기압소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이것을 먼저 만들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고 여러차례의 시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안정화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려단정리일군들이 현장

어길수 없는 지덕과 필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간 정치부장은 이제는 밤도 피고나 갔었으니 들어가 쉬라하고, 매일작업과도 할지 않은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였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루라도 빈자리 자리에 누워도 선뜻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이길수 없는 지덕과 필입니다.》

우수중대장 김충환동무가

두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며 일손을 더욱 다그쳤다.

전날같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쁘게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618 건설돌격대원들 모두가 이런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고산과 수농장 건설에 깨끗한 광명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높은 실력과 뜨거운 정성이 안아온 기적

한 특류영예군인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고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돌봐주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미풍이다.

우리는 얼마전 본사편지국으로 보내온 한 영예군인의 편지를 놓고서도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다스릴수 있었다. 영예군인 김경철동무는 현재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의 치료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온갖 정성을 다 하고있는 의사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생각됩니다.

술처럼 하반신마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알고있을것입니다. 저로서는 처음엔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저를 특류 영예군인이라고 떠받들어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사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고통속에 나날을 보냈을것입니다. ...》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제도와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하반신마비가 된 환자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세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는 고마운 이웃들과 당조직의 도움으로 그 중앙병원의 기능회복치료연구소 물리치료과에 입원하게 된 사실들이 적혀있었다.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생각됩니다.

술처럼 하반신마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알고있을것입니다. 저로서는 처음엔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저를 특류 영예군인이라고 떠받들어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사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고통속에 나날을 보냈을것입니다. ...》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제도와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하반신마비가 된 환자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세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는 고마운 이웃들과 당조직의 도움으로 그 중앙병원의 기능회복치료연구소 물리치료과에 입원하게 된 사실들이 적혀있었다.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생각됩니다.

술처럼 하반신마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알고있을것입니다. 저로서는 처음엔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저를 특류 영예군인이라고 떠받들어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사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고통속에 나날을 보냈을것입니다. ...》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제도와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하반신마비가 된 환자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세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는 고마운 이웃들과 당조직의 도움으로 그 중앙병원의 기능회복치료연구소 물리치료과에 입원하게 된 사실들이 적혀있었다.

김종래전기기 관리협업기술사

김종래전기기 관리협업기술사

김충환동무와 돌격대원들은

김충환동무와 돌격대원들은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재침의 칼을 갈면서 무슨 《위협》라령인가

일본에서 군국화와 우경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일본집권자가 또 다시 미사일방위체계수립과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이것은 주변나라들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며 《자위대》무력의 공격력과 활동범위를 대폭 늘이고 칩락전쟁을 일으키는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 가사로운것은 일본이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을 결코 미사일방위체계수립과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실현해보려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집권자는 일본과 미국이 란도미사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것이 《북조선의 핵미사일개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있기때문이며 그것은 오직 방어적인 목적을 가지고있다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였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하여서도 미국이 《북조선의 공격을 받는 경우》 선제공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필요하다는 일도당도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위협》때문에 미사일방위체제가 수립해야 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뿔을 곁고짓는데 이골이 난 정도의 뻔한 일이다. 이것은 군국화, 우경화로 질주하

는 저들의 범죄적정책을 감추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오그랑수어에 불과하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위협》을 여화하여 저들의 무모한 망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내외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술책이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집권자가 그 무슨 《방어적인 목적》이니, 《동맹국보호》니 하면서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과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미국과 결부시키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나날이 고립되어가고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책계에 따른것이며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또 다시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려는 군사적기도의 발로이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힘으로써 주변국들을 견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힘으로써 주변국들을 견제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힘으로써 주변국들을 견제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힘으로써 주변국들을 견제하려 하고있다.

승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의 손쉽게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떠벌이는 우리의 그 무슨 《위협》라령을 일본이 영부세처럼 뒤펀의 유언서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방위체계의 개발을 다그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광해상에서 미국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함선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느니, 방어하지 않을 경우 일부 동맹에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될것이라느니 뉘나 하고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만 일본이 구대의연하게 우리를 곁고들며 미사일방위체계수립과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해도 미국을 등에 업고 주변국들을 견제하며 나아가서 아시아제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범죄적속성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지금 일본의 정치풍토는 무분별한 군국주의적침략의 당에 절제 불어있던 미국인의 영향이 사회전반을 무성하게 배회하고있다. 과거 최악의 력사가 로골적으로 부정의 폭동이었던 미국국의 망명들을 숭상하고 찬미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개정에도 필

사적으로 달라붙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위계획대안》과 《중기방위력증진계획》,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는 등 해외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하고있다. 이와 함께 침략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수행하게 될 《자위대》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가지고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특강《자위대》의 병력은 영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라고 까뵈었다. 사실들은 일본이 제정야망실현의 실천단계에 들어섰으며 군국주의마차가 맹렬히 질주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데 달라붙는것은 재침준비의 마지막무모행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기질, 교활성을 뼈저리게 체험해온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속성을 가려보지 못할 나라는 없다. 일본정권들은 그 어떤 술수로도 세계를 속일수 없다는것을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위대한 생활력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인터넷에 글 게재

사회주의농촌체제발표 50돐에 즈음하여 영국순군정직연구회협회와 주제사상연구소가 2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체제에 관한 데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 주석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체제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들을 뚜렷이 명시하셨다. 이 로작은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위대한 생활력이 발휘되었다. 경제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최후 력사적서한에서 사회주의농촌체제가 발표된 후 이뤄낸 커다란 전변에 대하여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체제에 의해 조선에서는 농업발전의 밝은 전망이 열렸으며, 체제의 정당성은 오늘날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는 경제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새로운 성과들을 거둘것이라고 확신한다. 사회주의농촌체제발표 50돐에 즈음하여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2월 2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께서는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체제에 관한 데제》를 발표하셨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신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2014년이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농촌체제에 관한 데제

벌가 리 아 조선 친 선 협회 서방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규탄

벌가 리 아 조선 친 선 협회 회 8시간동틀했지만 여러명의 어린이들을 키우고있는 녀성들을 한하여서는 6시간동틀제를 실시하고있다. 같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악랄하게 벌이고있는데 대하여 까뵈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방이 과연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윤활한 자기가 있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모든 공민들에게 보장되고있으며 실업자도 없다. 8시간동틀제이지만 여러명의 어린이들을 키우고있는 녀성들을 한하여서는 6시간동틀제를 실시하고있다. 같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악랄하게 벌이고있는데 대하여 까뵈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방이 과연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윤활한 자기가 있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모든 공민들에게 보장되고있으며 실업자도 없다.

서방이 부르조이다당제에 대하여 오란하게 광고하고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부르조이다당제는 우리모두를 거지로 만들었다. 인권과 관련한 서방의 선전이 부르조이다당제의 정치적목적에 추구하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권에 대하여 문제시하려면 실질자대군에 넘쳐나는 남조선에서 과연 인권이 보장되고있는가부러 물어야 할것이다. 서방이 부르조이다당제에 대하여 오란하게 광고하고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부르조이다당제는 우리모두를 거지로 만들었다. 인권과 관련한 서방의 선전이 부르조이다당제의 정치적목적에 추구하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권에 대하여 문제시하려면 실질자대군에 넘쳐나는 남조선에서 과연 인권이 보장되고있는가부러 물어야 할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중국인 인터넷홈페이지 《제 4 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조선이 미국의것도 아니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연습을 벌여놓는다. 여기에는 방대한 병력과 전투기, 전략폭격기, 핵군함선 등 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 미국의 특수전 무력도 역시 연습에 참가한다.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말라 대해 강조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2월 23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에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벨라루씨국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맡겨진 과업을 수행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통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미국은 오랜 기간 이란을 반대하여 실시해오던 적대시정책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적대시책 비난 이란의무상 포함마드 자바드 자리파가 2월 25일 한 담화문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 적대시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 이란의무상 포함마드 자바드 자리파가 2월 25일 한 담화문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 적대시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제 4 언론》이 주장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제 4 언론》이 2월 25일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면 미국은 《군사연습》의 말을 쓰고 조선을 공격하려고 시도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조선이 미국의것도 아니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연습을 벌여놓는다. 여기에는 방대한 병력과 전투기, 전략폭격기, 핵군함선 등 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 미국의 특수전 무력도 역시 연습에 참가한다.

여러 나라들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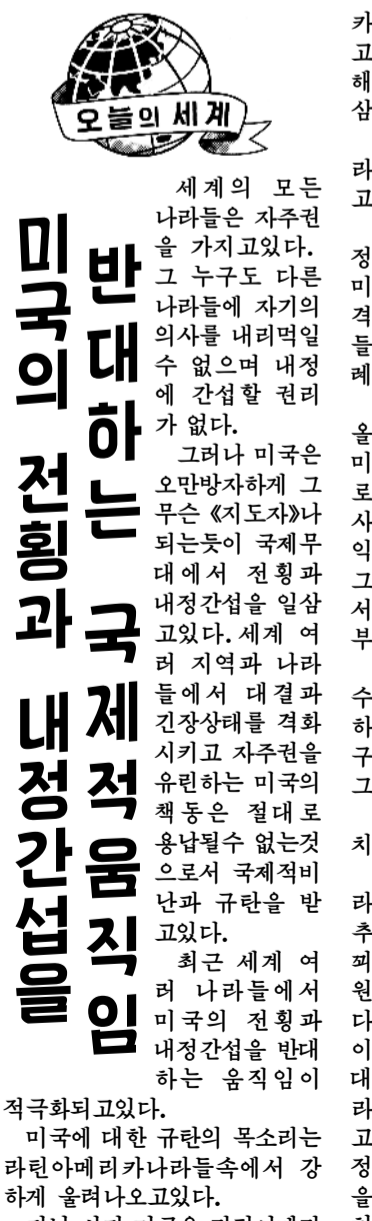
중국과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가 2월 25일 하루조건설, 안전,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2월 23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에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벨라루씨국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맡겨진 과업을 수행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통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미국은 오랜 기간 이란을 반대하여 실시해오던 적대시정책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적대시책 비난 이란의무상 포함마드 자바드 자리파가 2월 25일 한 담화문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 적대시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

일 본 에서 방 사 능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오염피해가 의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교도통신은 이곳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양크에서 1.27 2억 3 000Bq의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오염수가 발전소의수로 대량 유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오염수는 탱크의 윗부분에서 흘러나갔다고 하면서 통신은 그 량은 100t정도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넬 리 언 에서 반 미 시 위

카를 저들의 교묘한 뒤등산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해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그러나 오늘 라틴아메리카나 라틴은 미국의 책동에 맞서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베네수엘라가 반정부반동과 폭동을 배후조종한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했 하고 3명의 미국대사관직원을 추방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러짐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 직원들은 사자프 로그를 제명하는 구실로 사립대학들을 찾아다니며 우익단체지도자들을 접촉하여 그들을 제명시키려고 후원하면서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위기를 조성하여 이 나라 정권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속에서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라틴아메리



대한 베네수엘라 미국무장 관의 최근 내정간섭적인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베네수엘라의무장은 공포를 통하여 그들을 베네수엘라에서 불안정시도들을 추종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으로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폭력적사건의 주도자에 대한 제포결정을 내리고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떤 압력이나 포박에도 불구하고 제포결정을 리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쿠바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이주인민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이주인민과 정적이 쿠바인민들을 미국으로 불법이주하도록 추종하고 인사매매를 장려하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지난 1월 20일 파키스탄 외무성은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자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파키스탄이 그를 석방할 때까지 이 나라에 대한 원조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파키스탄은 이것을 부당한 처사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너절한 행위를 폭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하여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저들의 리해판계에 따라 갖은 모략과 수법을 적용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본사기자 신 경 석

리 철 력

무엇때문인가? 이 모든것이 어떻게 미국에 리적으로 되는가? 이것은 결코 조선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자주 조선이 군사연습을 이것저것 벌인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가장 요란한 대규모군사연습은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미국이 벌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조성사업을 꾸준히 내밀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9 000만무의 산림을 조성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 2월 26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콩, 강낭콩, 목감자, 버나나무를 비롯한 농산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도록 대부, 보험, 재해방지체제의 수립 등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웰 남 에서 웰남에서 목재와 그 가공품수출을 늘이고있다. 올해에 그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9% 늘어날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월 21일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정부가 청년들속에서 흡연과 알콜람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종 담배와 알콜음료들에 대한 세금이 각각 10%, 25%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2월 21일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지난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10개월동안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대되었다. 하 산 분 출 이란에서 2월 26일 메라피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기둥이 솟아오르고 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와 모래, 자갈이 남쪽으로 10km까지의 구역에 쏟아져내렸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취장암치료약 개발

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최근 취장암을 치료할수 있는 약을 개발하였다. AMD3100(Plaxafor)은 볼리우는 이 약은 인체의 면역성을 리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취장암세포유어에 보호장벽을 형성하고있는 두터운 섬유막에 인산염정체를 파괴함으로써 인체 세포들이 종양을 공격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취를 리용하여 약효과를 실험해본데 의하면 종양이 6일만에 거의 제거되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 약이 뒤늦게야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다른 종양치료에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일부 정세분석가들은 지난 2001년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투로 정권의 여러 수법을 썼다. 이라크에서 벌인 언론매수작전인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계는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도기관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수법이 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 주었다. 미국은 이전에도 여러곳에서 이런 수법을 썼다. 이라크에서 벌인 언론매수작전인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계는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도기관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수법이 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 주었다.